

‘프로포즈’ 3344 여성 맞춤형도집회

인터뷰

나를 위한 깊은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친한 선배가 “너를 위한 위로의 시간”일 거라고 권유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며 반갑고 친절하게 맞아주시는 봉사자 분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마치 세미나를 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하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끝도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울면서 힘들었던 시간이 떠올랐고, 위로의 시간이란 선배의 말처럼 내게 깊은 위로와 안식처가 되어준 귀한 집회였습니다. 하목사님과 선배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이설희 님

사랑받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회사의 이사님이 처음에 교회에 가자고 하셨을 때 시간을 내서 간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목사님의 ‘일곱가지 행복의 비타민’ 말씀이 참 와 닿았습니다. 송정미씨의 찬양과 진심으로 환영해 주는 분위기도 좋았고요. 본당에 걸려 있던 “당신을 사랑해도 되겠습니까?”라는 글을 봤을 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누군가 나를 사랑할 때 들을 수 있는 말이잖아요. 지금 꼭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기분이에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주신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송영면·유미림 님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후배가 ‘프로포즈’에 초청했을 때, 제목을 듣는 순간 너무나 설레었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제목처럼 제 인생의 귀한 프로포즈를 받은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탁아방에서 맡아주니 더 안심이 되어 집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날 토크쇼를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줄 알았고 우울증에 빠져있었는데 ‘모두들 나와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담대히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 이미숙 님

주님의 프로포즈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남동생의 권유로 지난 해바라기 집회에 어머니가 참석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남동생은 이번에 저를 초청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변한 모습을 보고 남동생의 말을 따라 이번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첫 날, 집회에 나와 하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알 수 없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하목사님께서 주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말씀하실 때는 깊은 공감을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날 내내 은혜 속에서 울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이번 프로포즈 집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 같습니다.

- 김수희 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이죠

일본어예배에서 하는 한글강좌 강의를 듣는 동안 아이를 돌봐주시는 분과 온누리교회에 다니는 다른 성도님, 두 분이 절 ‘프로포즈에’ 초청해주셨습니다. 두 분이나 권하시는 것을 보니 좋은 행사일 것 같아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 평소에 제 시간을 가질 수 없었어요. 이렇게 우아하게 식사를 할 수 없었고 콘서트나 음악 감상도 할 수 없었는데 교회에서 맛있는 식사도 하고 좋은 음악도 들어서 기쁩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전부터 막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했지만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인지 간절히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에서 제게 하나님이 꼭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노자키 미와꼬

좋은 집회에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동창이 저와 친구 한 명을 프로포즈에 초청해줬어요. 예전엔 교회에 다녔는데 결혼하고 시댁이 불교라 그 동안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초청을 받아 교회에 오니 좋네요. 특순도 좋았고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도 좋았습니다. 집회에 나오면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대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동안 항상 마음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당장 교회에 나가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회를 베풀어주신 온누리교회에 감사 드립니다.

- 김춘형 님

예수님과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원래 교회에 마음은 있었는데 몸이 쉽게 오게 되질 않더군요. 그런데 이번에 제 동서와 시누이가 절 초청해 줘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집회 내내 마음이 편했고 동서와 시누이와 함께 해서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결신카드에 서명했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가진 것을 불평하고 더 가지려고 바라지 않고 행복의 근원인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 최숙자 님

어려움을 만나도 기뻐하고 싶습니다

친구의 초대를 받고 왔습니다. 초대를 받았을 때 온누리교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했고 와보고 싶었어요. 교회를 다녀본 적도 있지만 열심히 다니지 않았어요. 오늘 목사님들이 춤추시는 것을 보고 그동안 생각했던 근엄한 목사님의 이미지가 친숙하게 바뀌었어요.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기뻐하라"는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교인들끼리만 잘 지내는 곳인 줄 알았는데 하나의 열린 공동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마음을 잘 간직해 앞으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 이순옥 님

* 출처 : 온누리신문